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권 3호 (2015년 9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태내 환경을 반영하는 발달 지표와 HPA 축의 기능장애와 관련 있는 행동과의 관계 심경옥 · 전우영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제 3판 사회-정서 척도의 타당도 연구 박인환 · 석혜은 · 김아영 · 신석호 · 방희정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갈등, 거부불안민감성, 소속에 대한 욕구와 또래괴롭힘 동조행동과의 구조적 관계 이승연 · 송경희 · 안소현

한국 유아의 격조사를 활용한 타동사 문장 이해 발달 진경선 · 김민주 · 송현주

불안 성향 노인의 정서인식 특성 정혜윤 · 진영선 · 장문선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험한 학교폭력 맥락에 관한 질적 연구 이미영 · 장은진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이혜원 · 박혜경 · 이옥경

갈등적응효과로 살펴본 인지적 통제의 연령차 박현진 · 김초복 · 박영신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및 심리적인영감:
 아동 · 청소년 · 성인집단의 비교 박하얀 · 정윤경 · 최해연

운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강인선 · 이현진

한국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관련 변인들의 고찰: 자살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의 적용 정영숙 · 정영주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인쇄일 : 2015년 9월 15일

발행인 : 정영숙(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발행일 : 2015년 9월 15일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심리학과 (내)

제작처 : 책과공간

전 화 : 051-510-2135

(02-725-9371)

편집위원장 : 정윤경(가톨릭대학교)

편집위원 : 권미경(U.C Davis) 김근영(서강대학교) 김혜온(목포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심사위원 : 강민주(연세대학교) 강연욱(한림대학교) 광금주(서울대학교) 권미경(U.C Davis)
김명식(전주대학교) 김민희(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김수안(서울대학교) 김수정(서울대학교)
김연수(서울대학교) 김정미(한솔교육문화연구원) 김혜리(충북대학교) 김혜온(목포대학교)
김홍근(대구대학교) 김희화(부산대학교) 문혁준(가톨릭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박창호(전북대학교) 박해원(울산대학교) 서경현(삼육대학교) 성은현(호서대학교)
성현란(대구가톨릭대학교) 손정락(전북대학교)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신나나(이화여자대학교)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신주혜(가톨릭대학교) 심희옥(군산대학교)
오영희(덕성여자대학교) 옥 정(서울사이버대학교) 유 경(한림대학교) 유연욱(계명대학교)
유연재(아주대학교) 윤재호(가톨릭대학교) 윤혜경(서연아동발달연구소) 이경님(동아대학교)
이승복(충북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이승진(서울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장유경(한솔교육문화연구원) 장은영(성균관대학교) 장은진(침례신학대학교) 정계숙(부산대학교)
정명숙(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정영숙(부산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조경자(호서대학교)
조숙자(이화여자대학교) 조아미(명지대학교) 조영일(성신여자대학교) 진영선(경북대학교)
채수은(한국교육개발원) 천성문(경성대학교) 최나야(가톨릭대학교) 최영은(중앙대학교)
최은실(가톨릭대학교) 최해연(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Editor : Yoon-Kyoung Jeong(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Editor : Mi-Kyoung Kwan(U.C Davis)

Geun-Young Kim(Seo Gang University)

Hye-On Kim(Mokpo National University)

Young-Shin Par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Na Song(Sungkyunkwan University)

Hyeon-Ju Song(Yonsei University)

Hyeon-Jin Lee(Yeungnam University)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8 권 제 2 호 / 2015. 9

태내 환경을 반영하는 발달 지표와 HPA 축의 기능장애와 관련 있는 행동과의 관계	심경옥 · 전우영 / 1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제 3판 사회-정서 척도의 타당도 연구	박인환 · 석혜은 · 김아영 · 신석호 · 방희정 / 29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갈등, 거부불안민감성, 소속에 대한 욕구와 또래괴롭힘 동조행동과의 구조적 관계	이승연 · 송경희 · 안소현 / 51
한국 유아의 격조사를 활용한 타동사 문장 이해 발달	진경선 · 김민주 · 송현주 / 75
불안 성향 노인의 정서인식 특성	정혜운 · 진영선 · 장문선 / 91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험한 학교폭력 맥락에 관한 질적 연구	이미영 · 장은진 / 115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이혜원 · 박혜경 · 이옥경 / 141
갈등적응효과로 살펴본 인지적 통제의 연령차	박현진 · 김초복 · 박영신 / 171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및 심리적안녕감: 아동 · 청소년 · 성인집단의 비교	박하얀 · 정윤경 · 최해연 / 189
운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강인선 · 이현진 / 209
한국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관련 변인들의 고찰: 자살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의 적용	정영숙 · 정영주 / 227

한국발달심리학회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갈등, 거부불안민감성, 소속에 대한 욕구와 또래괴롭힘 동조행동과의 구조적 관계

이 승 연* 송 경 희 안 소 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동조행동의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남녀 각각에서 부모-자녀 갈등과 거부불안민감성, 소속에 대한 욕구, 그리고 동조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김포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335명(남: 177, 여: 158)의 자기보고식 자료를 수집하여, 성별에 따른 다집단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자녀 갈등이 거부불안민감성과 소속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쳐 동조행동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는 소녀에게서만 유의하였다. 부모-자녀 갈등과 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소속에 대한 욕구의 단순매개 효과는 남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래괴롭힘 동조행동에 주목하였을 뿐 아니라, 성에 따른 차별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효과적 예방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또래괴롭힘, 동조행동, 부모-자녀 갈등, 거부불안민감성, 소속에 대한 욕구

*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2649, E-mail: slee1@ewha.ac.kr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또래괴롭힘(bullying)으로 인한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사건을 기점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강화나 정책 마련, 다양한 학문분야의 이론적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 등 범사회적인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5년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실태조사 결과(2014)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가담하거나 이를 경험한 시기가 초등학교로 저연령화되고, 학교폭력을 목격하면서도 방관하는 학생들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은밀하고 간접적인 방식의 가해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주의를 요한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실제로 Elledge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급의 학생들은 신체적 공격성처럼 직접적인 방식보다 사이버불링과 같은 은밀하고 정교한 형태의 간접적 공격성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폭력을 사용하는 동기와 집단 내에서 폭력이 담당하는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이 감소하기 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 될 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현재의 낮은 가해율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또래괴롭힘은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괴롭히는 것으로(Olweus, 1997), 주도적 가해자(ring-leader bully)는 집단 내에서 힘과 영향력, 지위를 얻으려는 목적 하에 괴롭힘 행동을 하게 된다(Schwartz, Proctor, & Chien, 2001). 이러한 이유에서 또래괴롭힘

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자 구도 보다는 집단 역동의 측면에서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괴롭힘 목격 시 방어자(defenders), 방관자(outsiders), 가해 조력자(assistants)나 강화자(reinforcers) 같은 주변인들(bystanders)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또래괴롭힘의 악화나 감소에 결정적이다(Salmivalli, 2010).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돕거나 가해자를 제지하는 17-23%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가해자를 돕거나 강화하며 또는 수동적으로 방관하는 것으로 보고되며(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 Österman, & Kaukiainen, 1996), 가해자는 이들의 행동을 자신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행위로 해석하여 괴롭힘 행동을 강화시켜 나가게 된다(Craig & Pepler, 1997). 따라서 가해자가 주변인들로부터 얻게 되는 이러한 신호를 줄일 수만 있다면 애초에 가해자가 괴롭힘 행동을 통해 얻고자 했던 동기를 감소시켜 가해행동 역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대표적인 또래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중 하나인 KiVa 프로그램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Kärnä, Voeten, Poskiparta, & Salmivalli, 2010).

그러나 주변인에 대한 연구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또래괴롭힘 참여역할은 방어자이다. 괴롭힘 상황에서 방어자의 존재만으로 가해행동이 10초 내에 중단된다는 관찰(Hawkins, Pepler, & Craig, 2001)을 계기로, 주변인의 방어행동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 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행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개발원의 어울림 프로그램이나 법무부의 행복나무 프로그램(정제영, 이승연, 오인수, 강태훈, 류성창, 2013)은 학교폭력 목격 시 학생들이 기꺼이 방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매우

익숙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괴롭힘이 반복되는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돕거나 가해자를 억제하는 행동은 일반적인 친사회적 행동과 달리 개인적 위험부담이 매우 크며 (Twenlow & Sacco, 2013), 방어행동을 늘리는 것이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 점차 인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연구들은 가해자를 돕거나 부추기는 친가해적 성격의 주변인, 즉 동조자를 줄이는 것이 방어행동을 늘리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층모형 분석을 통한 Salmivalli, Voeten과 Poskiparta(2011)의 연구에서 학급의 가해 강화 행동 수준은 개인의 괴롭힘 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이 때 그 예측력은 학급의 방어 행동 수준보다 더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학급의 가해 강화 행동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피해경험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불안이나 또래거부가 개인의 피해경험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Kärnä et al., 2010). 또한 도덕적 이탈감은 학급의 친가해적 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개인의 가해행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nesini, Palladino, & Nocentini, 2015).

이러한 연구들은 가해자들이 방어자의 부정적 피드백 보다는 친가해적 성격을 지닌 주변인들의 긍정적 피드백에 더욱 민감하며, 학급의 가해 강화 행동 수준이 개인의 괴롭힘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급의 친가해적 행동 수준이 관련 변인들의 효과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은 방어 행동 뿐 아니라 가해행동을 돕거나 강화하는 주변인들의 행동, 즉 동조 행동에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해자의 괴롭힘 행동에 동조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드문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conformity)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또래 군집화가 시작되면서 증가하게 된다(Brown, Mory, & Kinney, 1994; Sussman et al., 1994). 청소년들은 또래로부터 조롱받는 것을 피하고, 또래와 다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또래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또는 자신을 수용한 집단 내에 두드러지는 행위나 행동 규준을 따르게 된다(Juvonen & Galván, 2008; Knapp, Bäck, & Bäck, 2015). 또래집단에 속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적 발달을 돕고 그렇지 못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우울이나 불안 등 내재화 문제를 줄여 줄 수 있긴 하지만, 반사회적 행동 등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Newman, Lohman, & Newman, 2007). 이는 반사회적 행동 규준을 가진 내집단(in-group)에 대한 동조로서 설명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는 또래괴롭힘을 허용하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학급의 규준이 친가해적이라고 지각할 경우에는 가해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Scholte, Sentse, & Granic, 2010).

한편, 집단주의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은 집단적 조화와 사회적 수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규준적 영향에 취약하고 순응 행동이 나타나기 쉽다(Oh, 2013). 따라서 또래괴롭힘 상황에서의 동조 행동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실제적인 연구 주제일 수 있다. Salmivalli, Lappalainen과 Lagerspetz(1998)의 6학년 연구에서 직접 공격을 주도하지 않지만 가해자를 추종하여 돕는 가해 조력자는 소년의 경우 12.2%, 소녀는 1.4%였다. 한편, 국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혜리(2013)의 연구에서 소년 17.9%, 소녀 4.5%로 나타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행해진 Salmivalli 등(1998)의 연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해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지만 웃거나 가해자를 부추기는 등의 행동을 하는 가해 강화자는 Salmivalli 등(1998)의 연구에서 소년 37.3%, 소녀 1.7%, 김혜리(2013)의 연구에서는 각각 11.4%, 0%로 보고되었으며, 소년의 가해 강화행동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이 소년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 아니라(Brown, Clasen, & Eicher, 1986; Santor, Messervey, & Kusumakar, 2000), 가해 조력자 또는 강화자 중 소년의 비율이 소녀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 동조행동에 대한 기제를 설명할 때 남녀를 구분해 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이처럼 또래괴롭힘 동조행동이 관계적 맥락에서 의미를 지님에도 지금까지 행해진 소수의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 내적인 특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한계가 있다. 즉, 도덕성이 낮거나 도덕적 이탈이 심한 것,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것, 내적 통제성이 낮은 것이 또래괴롭힘 동조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신은경, 강민주, 2014; 전주연, 이은경, 유나현, 이기학, 2004; Thornberg & Hungert, 2013), 도덕적 이탈과 동조행동 간의 관계는 낮은 수준의 공감과 죄책감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미정, 2013). 한편, 성격 특성에 초점을 맞춘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연구에서 동조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우호성이 유의하게 낮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Tani, Greenman, Schnieder, & Fregoso, 2003). 높은 또래압력이

가해 동조행동을 직접 예측하거나(조운주, 정옥분, 2009), 교사의 지지가 낮은 것이 가해 조력자 및 강화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Choi & Cho, 2012)가 있긴 하지만, 관계적 맥락을 반영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또래괴롭힘 동조행동을 살펴 본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문 상태이다.

청소년기 또래집단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맥락으로(Rubin, Bukowski, & Parker, 1998; Chen, Chang, & He, 2003),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을 가능케 하고 안전감을 갖게 한다(Shulman, Seiffge Krenke, Levy Shiff, Fabian, & Rotenberg, 1995). 많은 경우 청소년들은 사회적 거절이나 소외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조하게 되는데(Koudenberg, Postmes, & Gordjin, 2013), 이는 청소년기 초기, 집단에 대한 소속 욕구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Ojanen, Grönroos, & Salmivalli, 2005). 소속에 대한 욕구(need to belong)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동기 중 하나로 친밀감, 승인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대인관계의 토대가 된다(Baumeister & Leary, 1995).

그러나 소속에 대한 욕구 측면에서 또래괴롭힘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최근에야 시작되었다. 가해행동을 주도하지는 않지만, 옆에서 가해행동을 돕거나 부추김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래집단에 속하기를 원하는 또래괴롭힘 동조자들의 강한 욕구는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규준에 맞추고자 하는 안정된 경향성을 만들어내고, 동조행동을 증가시키게 된다(Juvonen & Galván, 2008). 즉, 또래괴롭힘 동조행동은 집단 소속의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으며(Twemlow & Sacco, 2013; Underwood & Ehrenreich, 2014), 소속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록 동조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소속에 대한 욕구와 또래괴롭힘 참여 유형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Olthof와 Goossens(2008)의 연구에서 소년의 가해행동/동조행동(둘을 묶어서 측정함)은 동성 또래로부터, 소녀의 경우에는 이성 또래로부터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었다. 한편, 소녀가 소년에 비해 집단에 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등(Kiesner, Cadinu, Poulin, & Bucci, 2002), 소속의 욕구가 작용하는 방식에서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속에 대한 욕구를 설명하는 관련변인으로 가장 먼저 부모-자녀 관계에 주목하였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신뢰하며 건강하고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반면, 부모와의 갈등적 관계는 이후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다양한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한다(Burt, Krueger, McGue, & Iacono, 2003; Burt, McGue, Krueger, & Iacono, 2005; Collins, Maccoby, Steinberg, & Bornstein, 2000; Waters & Cummings, 2000). 보통 부모-자녀 간 갈등은 소년보다는 소녀에게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이혜련, 김희화, 2015; Allison & Shultz, 2004).

한편, 부모-자녀 간 갈등으로 좌절된 친밀성 욕구는 어떤 식으로든 충족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의 미시체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다른 미시체계들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이를 보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주목할 만하다(McWhirter, McWhirter, McWhirter, & McWhirter, 2012). 실제로 가족 내 갈등이 심하고 개별화에 대한 지지가 적은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또래집단 내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더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ulman et al., 1995).

또한, 심각한 가족갈등을 경험하는 이 초등학생들은 또래압력에 더욱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Shulman et al., 1995), 중학생 대상의 싱가포르 연구에서도 가족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 또래압력은 음주빈도를 더 강하게 예측하였다(Choo & Shek, 2013). 즉, 심각한 부모-자녀 간 갈등은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 욕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결국 동조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부모-자녀 간 갈등은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의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수용과 지지를 얻고자 할 때 거절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여 불안이나 분노를 느끼고, 거절당했다고 지각하여 과도하게 반응하는 정서적, 인지적 경향성이다(Feldman & Downey, 1994).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거절에 대한 메시지를 경험하게 되면, 아동은 거절에 대한 방어적 기대인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경우(장미희, 이지연, 2011;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나 부모로부터 거부적 양육, 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홍상환, 박혜정, 2013; 황은수, 성영혜, 2006; Downey, Bonica, & Rincón, 1999) 거부민감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거부민감성은 대인간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의 경우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urdie & Downey, 2000). 대학생 연구이긴 하지만 여성의 거부민감성 수준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김나영, 조유

진, 2009).

거부민감성은 거절이 기대될 때 동반되는 정서에 따라 거부불안민감성(anxious rejection sensitivity)과 거부분노민감성(angry rejection sensitivity)으로 나뉜다(Downey, Lebolt, Rincón, & Freitas, 1998). 거부분노민감성은 공격적 행동과 정적으로 연합된 반면(Downey et al., 1998), 거부불안민감성은 주로 사회불안, 위축, 우울 등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본 연구는 특히 거부불안민감성에 주목하였는데, 사회적 거부나 배척에 대한 두려움이 내집단에 대한 동조와 외집단에 대한 적대적 행동에 기여하기 때문이다(Knapton et al., 2015). 또한 주도적으로 가해행동을 하지 않지만 힘 있는 가해자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해행동에 동조하게 된다는 주장(Camodeca & Goossens, 2005)은 가해 동조행동이 특히 불안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거부불안민감성에 관한 성차를 살펴본 London 등(2007)에 따르면, 중학생 소년에 비하여 소녀가 더 높은 거부불안민감성을 보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거부불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을 피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며(Downey & Feldman, 1996),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동적이거나 회피적 또는 순종적 행동을 할 수 있음이 논의된 바 있다(Purdie & Downey, 2000). 그러나 거부불안민감성이 또래 괴롭힘 피해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홍상황, 박혜정, 2013)만 존재할 뿐, 거부불안민감성과 또래괴롭힘 동조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직접 검토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부불안민감성이 높을 경우 내집단 동조와 외집단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연합되면서 가해자의 괴롭힘 행동에 동조하게 될 가능성이 높

아질 것임을 추측가능하며 본 연구를 통해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거부불안민감성이 소속의 욕구에 영향을 미쳐 가해 동조행동에 기여하게 되는 간접적 기제 역시 가정해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거절을 당하는 것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인은 어떻게 해서든 타인들과의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Knowles, 2014),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킨다(MacDonald & Leary, 2005). 잠재적인 거절을 기대하여 불안해하는 청소년들 역시,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들이 속한 집단 규준에 맞추어 행동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거부경험으로 인해 거부불안을 많이 느끼는 대학생들은 소속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았으며(Bäck, Bäck, & Knapton, 2015), 불안 및 거부민감성은 소속에 대한 욕구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Leary, Kelly, Cottrell, & Schreindorfer, 2013).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상황에서의 동조행동을 의미 있게 설명하기 위해, 부모-자녀 갈등, 거부불안민감성, 소속에 대한 욕구와 동조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부모-자녀 간 갈등으로 반복된 거부경험이 거부불안민감성을 높이고, 집단에 소속되려는 욕구를 증가시키며, 결국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의 행동에 동조하게 만들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러한 기제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부불안민감성과 동조행동 관계가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나,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부불안민감성에서 동조행동 간의 경로를 상세한 경쟁모형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그림 1, 2). 이 때 특히 또래괴롭힘 동조행동과 다른 변인들에서의 성차를 고려하여 성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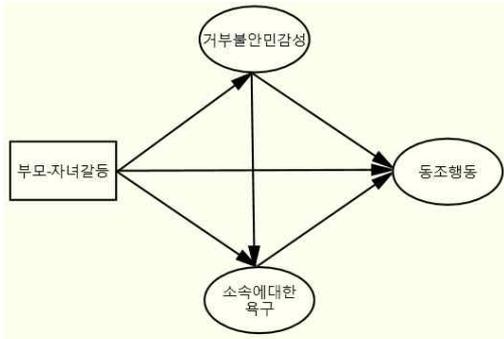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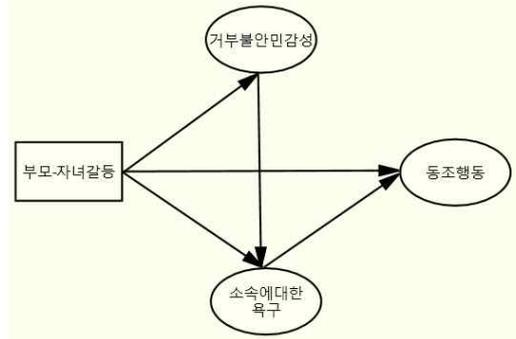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관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자녀 갈등, 거부불안민감성, 소속에 대한 욕구, 동조행동에서 성차가 있는가?
2. 부모-자녀 갈등, 거부불안민감성, 소속에 대한 욕구, 동조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2013년 11월, 서울 및 김포 소재 2개 초등학교 5, 6학년 355명(남: 190명, 여: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으로 한정된 것은 학교폭력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가 저연령화되고, 사춘기 시작 시기가 점차 앞당겨 지면서 초경 평균연령이 중학생 11.5세, 고등학생 11.8세로 낮게 나타났으며(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청소년기 초기가 부모-자녀 간 갈등이 극대화되는 시기라는 것(Laursen, Coy, & Collins,

1998)에 기초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연구대상 학교의 교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연구목적과 실시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해 설문 실시자인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였다. 측정 도구의 순서를 달리한 세 가지 유형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학급별로 약 20분간 설문을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하거나 척도 당 20% 이상의 결측치가 있었던 20명의 자료(5.63%)를 제외하고, 335명의 자료(남: 177명, 52.8%; 여: 158명, 47.2%)를 최종 분석하였다. 평균연령은 11.40세($SD=.57$)였으며, 자기보고에 따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27명(8.1%)을 제외하고는 '중간' 이상(즉, 중, 중상,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부모-자녀 갈등

부모와의 부정적 갈등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오영희(2004)가 개발한 부정적 부모-자녀 갈등 경험 검사(Negative Parent-Child Conflict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대학생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고등학생에게도 적용된 바 있다(오

영희, 2007). 본 연구를 위해 발달심리학 전공 교수와 박사과정생이 미리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예비연구를 통해 초등학생도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총 16문항,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갈등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형제 유무에 따라 사용 가능한 문항 수가 차이가 났으므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고등학생 대상 연구(오영희, 2007)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불안민감성은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CRSQ, Downey et al., 1998)를 한국 문화에 맞게 수정한 한국판 아동 거부민감성 척도(박지윤, 2004)로 측정하였다. 한국판 CRSQ는 12가지 거절 상황(또래관련 상황 8가지, 교사관련 상황 4가지)에서 거부가 예상될 때 경험하는 3가지 예상정서(불안, 분노, 우울)와 거부예상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는 또래관련 상황 에피소드 8가지와 거부불안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거부불안민감성 점수는 거부불안(1: 전혀 불안하지 않다 ~ 6: 매우 불안하다)점수와 거부예상 정도(1: 확실히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6: 확실히 거부할 것이다)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불안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지윤(2004)의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거부불안민감성의 내적합치도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소속에 대한 욕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Leary 등(2013)의

Need to Belong Scale(NTBS)을 이중 역번역 과정에 따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발달심리학 전공교수와 박사과정생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예비연구를 통해 초등학생도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속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15개 모집단을 활용한 Leary 등(2013)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8 ~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또래괴롭힘 동조행동

Salmivalli 등(1996)에 의해 고안된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PRQ)를 자기보고식으로 재구성하여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 질문지(서미정, 2008) 중 가해 동조행동에 관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행동에 대한 동조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중학생 대상 연구(서미정, 2013)에서 내적합치도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성차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이후 본 척도에서 단일차원으로 측정된 거부불안 민감성, 소속에 대한 욕구, 가해동조행동 척도에 대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한 문항 묶음화(item parcelling)를 실시하였다. 다만, 부모-자녀 갈등척도는 형제 유무에 따라 피험자가 실시하는 문항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변수로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변인들 간 성차가 존재한다는 기존의 이론적 배경을 고려하여 AMOS 18.0을 사용,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으로 다집단 구조 모형을 추정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집된 자료의 부합성은 χ^2 검증,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변량 델타 방법(Multivariate delta method, Sobel, 1982)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났는데, 효과크기는 크지 않아 약간의 성차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자녀 갈등은 성별에 상관없이 거부불안민감성($r_{\text{남}}=.34, r_{\text{여}}=.47, p<.001$) 및 동조행동($r_{\text{남}}=.23, r_{\text{여}}=.22,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변수들 간 관계에서 성차가 일부 발견되기도 하였다. 즉, 소녀의 거부불안민감성은 소속에 대한 욕구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46, p<.001$), 소속에 대한 욕구는 동조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19, p<.05$). 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과 소속에 대한 욕구($r=-.21, p<.01$)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결 과

부모-자녀 갈등, 거부불안민감성, 소속에 대한 욕구, 가해 동조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성차 및 잠재 변인들 간의 단순상관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집단 t 검증을,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소녀의 거부불안민감성($t=-2.50, p<.05, d=.27$)과 소속에 대한 욕구($t=-3.18, p<.01, d=.35$) 수준은 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단변량 정상성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왜도: -.018~1.92, 첨도: -.094~5.40)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하여 다변량 정상성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단변량 정상성이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변량 정상성 또한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Kline, 2011). 또한 연구모형의 분석 전에

표 1. 잠재변수들 간의 성별 차이 및 상관 (소년=177명, 소녀=158명)

		1	2	3	4
1. 부모-자녀 갈등		-			
2. 거부불안민감성		.34***(.47***)	-		
3. 소속에 대한 욕구		-.21**(.13)	.09(.46***)	-	
4. 동조행동		.23**(.22**)	.14(.13)	.06(.19*)	-
M(SD)	소년	1.57(.44)	6.09(4.39)	3.16(.67)	1.52(.62)
	소녀	1.51(.41)	7.35(4.85)	3.40(.70)	1.48(.55)
t		1.15	-2.50*	-3.18**	.60

주. 상관분석에서 괄호 안의 수치는 소녀에 해당함; *** $p<.001$, ** $p<.0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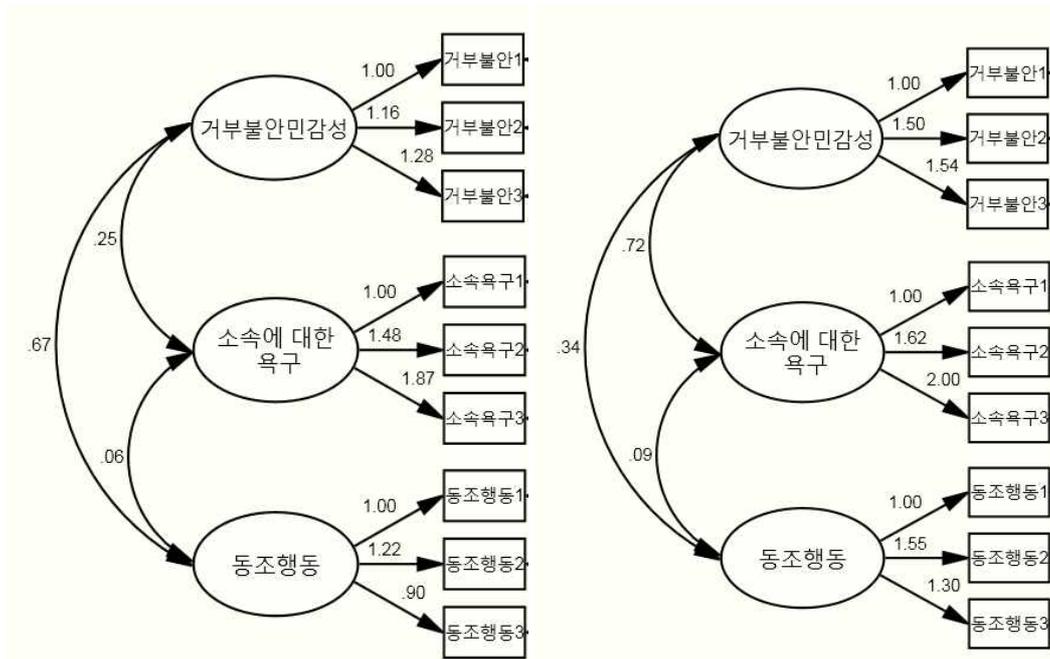


그림 3.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요인부하량 (좌: 소년, 우: 소녀)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비표준화 수치임

Anderson과 Gerbring(1988)의 제안에 따라 측정 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그림 3). 그 결과, 측정모형이 적절한($\chi^2(48)=80.22$, $p<.01$, CFI=.966, TLI=.949, RMSEA=.044 [90% CI: .027~.061])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부하량도 남녀 모두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본 연구가 가정한 연구모형은 거부불안민감성이 부모-자녀 갈등과 또래괴롭힘 동조행동 간의 관계를 직접 매개하는 경로와 소속에 대한 욕구를 거쳐 동조행동을 설명하는 이중매개 경로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거부불안민감성과 동조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고, 거부민감성과 동조행동 간의 직접적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가 부족한 점을 참고하여 Martens(2005)의

제안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경쟁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chi^2(62)=101.42$, $p<.01$, CFI=.962, TLI=.945, RMSEA=.044 [90% CI: .028~.059]). 연구모형($\chi^2(60)=99.70$, $p<.001$, CFI=.962, TLI=.943, RMSEA=.044 [90% CI: .028~.059])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검증 결과 두 모형 간 적합도 수준에서 변화가 유의하지 않아($\chi^2_{diff}(2)= 1.72$) 간명성 원리를 고려하여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이어서 남녀 집단에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형태동일성 및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였다. 형태동일성 분석 시, χ^2 값은 유의하였지만($\chi^2(60)=99.70$, $p<.001$), 다른 적합도 지표들이 적절하였기 때문에(CFI=.962, TLI=.943, RMSEA=.045 [90% CI: .028~.059]) 형태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동일성에 관한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로, χ^2 값은 유의하였지만($\chi^2(66)=106.39, p<.01$), 다른 적합도 지수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CFI=.961, TLI=.947, RMSEA=.043 [90%CI: .027~.057]). 모든 경로를 제약한

측정동일성 모형과 모든 경로를 자유로이 추정하도록 한 기저모형과의 χ^2 차이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chi^2_{diff}(6)=6.70$) 완전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두 집단 간 같은 구조모형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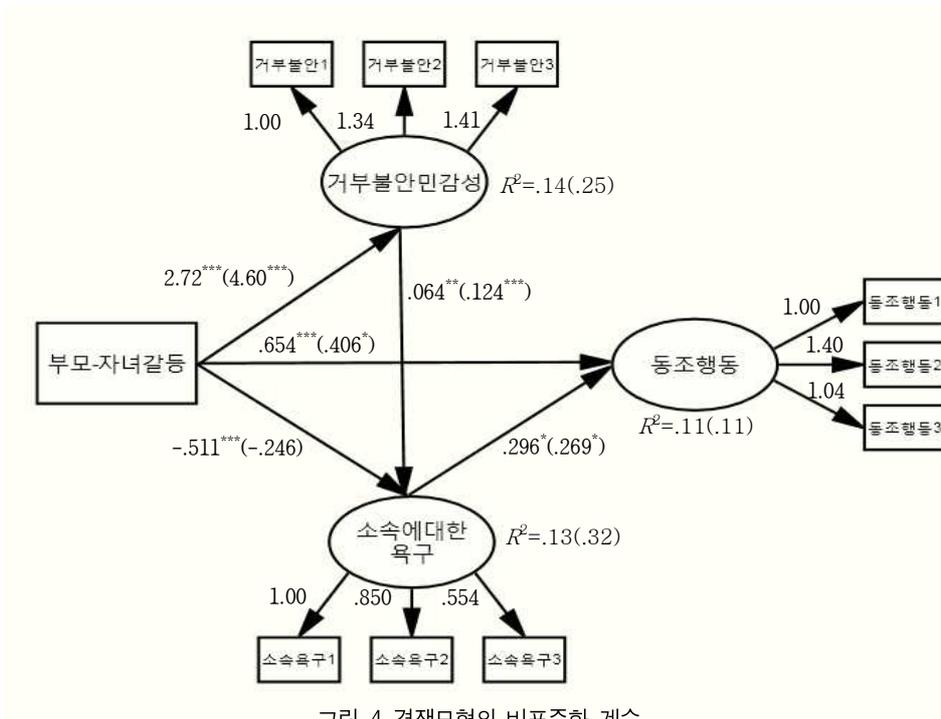


그림 4 경쟁모형의 비표준화 계수

주. 소녀의 수치는 괄호 안에 표기하였음

표 2. 집단별 구조모형 모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남	여	남	여	
부모-자녀 갈등 → 거부불안민감성	2.72***	4.60***	.57	.72	.37	.50
부모-자녀 갈등 → 소속에 대한 욕구	-.511***	-.246	.14	.18	-.33	-.13
거부불안민감성 → 소속에 대한 욕구	.064**	.124***	.02	.02	.31	.62
부모-자녀 갈등 → 동조행동	.654***	.406*	.19	.19	.31	.19
소속에 대한 욕구 → 동조행동	.296*	.269*	.14	.12	.22	.24

*** $p<.001$, ** $p<.01$, * $p<.05$

한편, 다집단 분석 결과는 Kline(2011)에 제안에 따라 비표준화 계수로 해석하였고(그림 4, 표 2), 집단 내 경로계수 비교를 위하여 표준화 계수도 제시하였다(표 2). 부모-자녀 갈등은 남녀 모두 동조행동(남=.654, $p<.001$; 여=.406, $p<.05$)과 거부불안민감성(남=2.72, 여=4.60, $p<.001$)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소년 모델에서 부모-자녀 갈등은 소속에 대한 욕구를 부적으로 예측하였지만, 소녀 모델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남 = -.511, $p<.001$; 여=-.246, *n.s*). 거부불안민감성은 성별에 상관없이 소속에 대한 욕구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남=.064, $p<.05$; 여=.124, $p<.001$). 또한, 소속에 대한 욕구도 동조행동을 성별에 상관없이 정적으로 예측하였다(남=.296, 여=.269, $p<.05$).

마지막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에서 성차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변인들 간 경로계수를 남녀 간 동일하다고 제약한 모형과 기저모형 간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부모-자녀 갈등에서 거부불안민감성 경로와 거부불안민감성에서 소속에 대한 욕구 경로에서 χ^2 차이검증이 유의하여 이 두 경로에서 남녀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해당 경로에서 소녀가 소년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개효과 분석

부모-자녀 갈등과 또래괴롭힘 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거부불안민감성과 소속에 대한

표 3. 기저모형과 경로계수에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의 남녀집단 차이 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χ^2	df	$\Delta\chi^2$	Δ df	TLI	CFI	RMSEA (90% CI)
기저모형	107.885	68			.949	.962	.042 (.03~.06)
거부불안민감성 → 소속에 대한 욕구	111.885	69	4.00*	1	.946	.959	.043 (.03~.06)
소속에 대한 욕구 → 동조행동	107.906	69	.021	1	.951	.963	.041 (.03~.06)
부모-자녀 갈등 → 소속에 대한 욕구	109.180	69	1.295	1	.950	.962	.042 (.03~.06)
부모-자녀 갈등 → 동조행동	108.773	69	.888	1	.950	.962	.042 (.03~.06)
부모-자녀 갈등 → 거부불안민감성	112.369	69	4.484*	1	.945	.959	.043 (.03~.06)
완전 경로 동일성 제약	123.536	73	15.651	5	.940	.952	.046 (.03~.06)

* $p<.05$

욕구 각각의 단순매개 효과, 그리고 거부불안민감성과 소속에 대한 욕구 모두를 거쳐 동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 델타 방법을 적용하였다(Sobel, 1982). 단순매개효과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각각 $Z = -1.84$, $Z = -1.18$).

하지만 부모-자녀 갈등과 또래괴롭힘 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거부불안민감성과 소속에 대한 욕구의 이중 매개효과는 소녀의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1.97$).

논 의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예방을 위해 주변인의 행동 중 특히 동조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연구들은 방어행동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가해자를 돕거나 부추기는 동조행동을 줄여서 가해자가 집단 내에서 힘과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기본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이 또래괴롭힘 예방을 위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Kärnä et al., 2011; Salmivalli et al., 2011).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는 구성원들이 집단 규준이나 행동에 순응하고 동조하기 쉬우며(Oh, 2013) 실제로 가해조력행동을 보이는 초등학생의 비율(김혜리, 2013)이 외국 초등학생(Salmivalli et al., 1998)과 비교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어떤 기제를 통해 동조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과 관련하여 현실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갈등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또래괴롭힘 동조행동에 기여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 때 거부불안민감성과 소속에 대한 욕구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초등학생들은 부모-자녀갈등이나 동조행동에서 유의한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또래괴롭힘 참여역할을 구분하였던 김혜리(2013)나 Salmivalli 등(1998)의 연구에서 소년이 소녀에 비해 더 많이 동조자로 구분되었던 것과 달리, 동조행동 변인에서의 개인차를 살펴 본 신은경, 강민주(2014)의 초등학생 연구에서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런 차이를 단순히 개인-중심(person-centered) 또는 변인-중심(variable-centered) 연구의 차이로 간주할 수는 없는데, 또래평정을 사용했을 때 가해 조력과 강화행동 변인 모두에서 남자 초등학생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Salmivalli & Voeten, 2004). 아마도 이러한 비일관적 결과는 또래평정과 자기보고식 측정(예, 신은경, 강민주, 2014)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자기보고식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객관성 문제(김혜리, 2013)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소녀는 또래에게 수용과 지지를 얻고자 할 때 자신이 거부될 것이라는 불안함을 소년에 비해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불안민감성이 흔히 사회불안이나 우울 등 내재화 문제와 관련성이 있으며(London et al., 2007), 사춘기 전후로 소녀들의 내재화 증상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Leadbeater, Kuperminc, Blatt, & Hertzog, 1999; Wade, Cairney, & Pevalin,

2002). 실제로 미국 6학년 대상의 연구에서도 소녀의 거부불안민감성이 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London et al., 2007). 소녀의 높은 소속 욕구는 소년이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에 비해 소녀는 타인과의 유대를 중시하고(Killen & Stangor, 2001), 소년에 비해 집단에 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Kiesner et al., 2002), 실제로 소집단(cliques)에 속해있는 비율도 소년보다 더 높다는 사실(Ennett & Bauman, 1996)로 뒷받침된다.

본 연구에서 소녀들의 이러한 소속 욕구는 또래괴롭힘 상황에서의 동조행동과도 경미하긴 하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거부불안민감성과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관계는 소년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부모-자녀 간의 갈등은 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소년들의 욕구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연구자들의 가정과 상반된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소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적 상관을 보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애정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 보통 가정 밖 또래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이를 보상하고자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Shulman et al., 1995)와 달리, 본 연구의 소년들은 어떤 집단에도 의미 있게 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의 원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후에 맺게 되는 여러 관계 유형에서도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Benson, McWey, & Ross, 2006), 가정 밖 타인들과의 관계 자체에 대한 기대나 욕구가 적어질 수 있음을 뜻할 것이다. 게다가 소수의 친구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소녀와 달리, 소년들은 다수의 또래와 신

체적 활동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더 큰 관계망을 형성하며 동시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혼자인 경우가 소녀에 비해 더 많기 때문에(Urberg, Değirmencioğlu, Tolson, & Halliday-Scher, 1995), 부모와의 반복된 갈등경험은 특히 소년의 친밀한 대인관계욕구 및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일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Shulman 등(1995)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갈등이 심각하고 지지가 부족할 때 또래집단에 속하려는 노력이 증가했던 것과 달리, 소속의 욕구와 부적 관련성을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직접적인 또래관계 의존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토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부모-자녀 간 갈등이 심각한 것은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동조행동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와의 불안정애착(Eamon & Mulder, 2005; Kim, Kochanska, Boldt, Nording, & O'Bleness, 2014)이나 갈등적 관계(Deković, Janssens, & As, 2003)가 반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부모와의 갈등 경험을 통한 사회적 거부나 소속 욕구의 좌절이 어떻게 해서든 유대관계를 회복시키도록 만들고, 사회적 단서에 민감하게 하며 결국 집단 내 규준에도 기꺼이 동조하게 만든다는 연구결과(Knapton et al., 2015; Shulman et al, 1995)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부모-자녀 갈등이 심한 것은 남녀 모두에서 거부불안민감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소녀에게서 더 강력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와 불안정애착을 형성하거나(장미희, 이지연,

2011) 부모로부터 거부적인 양육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홍상환, 박혜정, 2013; Downey et al., 1999), 그리고 부모가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따라 조건적으로만 자녀를 수용해 온 경우(Romero-Canyas et al., 2010)에 거부민감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에 의해 지지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자녀 갈등이 심한 것은 소녀의 경우 소속에 대한 욕구와 관련이 없었으며, 소년의 경우에서만 소속에 대한 욕구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대한 욕구는 남녀 모두에서 또래괴롭힘에 대한 동조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집단 내에 수용되고 소속되기를 원하는 초등학교생들은 가해자들의 괴롭힘 행동을 반대하거나 제지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이에 따르거나 옆에서 조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으로 거부되었을 때, 즉, 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방해받았을 때, 사람들은 사회적 단서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고 공격적, 반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주변의 영향에 취약해지며(Williams, 2007, Knapton et al., 2015에서 재인용), 집단 규준에 더 동조하게 된다(Knapton et al., 2015). 이는 소속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록 가해행동에 대한 동조 역시 증가하는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러나 부모-자녀 갈등과 동조행동 간의 관계를 소속에 대한 욕구가 매개하는 관계는 남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자녀 갈등으로 심화된 거부불안민감성은 남녀 모두의 소속에 대한 욕구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

계는 특히 소녀에게서 강력하였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잠재적인 거부에 대한 불안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어딘가에 의미 있게 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속에 대한 욕구가 부적 정서나 불안,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는 Leary 등(2013)의 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뒷받침된다. 또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집단에 속하려는 동기를 통해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된다는 연구(Lewis et al., 2008)는 거부불안민감성이 소속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간 갈등이 거부불안민감성을 높이고, 다시 소속에 대한 욕구를 높여 궁극적으로 동조행동이 증가하는 이중매개효과는 소녀에게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녀들의 또래괴롭힘 동조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자녀 간 갈등을 줄여서 거부불안민감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또래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중매개효과는 소년들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소년들의 동조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녀들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매개변인들이 소녀의 관계지향적 특성에 더 부합되는 변인이기 때문일 수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성취감이나 사회적 지위에 초점을 두는 소년의 또래관계 특성을 반영한(Berk, 2013/2015) 새로운 매개변인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남자 대학생의 경우 거부가 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때, 거부민

감성이 높은 여자 대학생의 경우 거부가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까운 관계와 관련될 때 환심을 사거나 동조하는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mero-Canyas et al., 2010).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남녀의 동조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상황의 특성 또한 고려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갈등을 줄이는 것이 직접적으로 소년의 동조행동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 드러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조성이나 또래괴롭힘 상황에서의 동조행동이 더 빈번한 소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더 적극적인 연구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시작 시기가 지연령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이들의 또래괴롭힘 행동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주변인 대상 연구들이 방어행동에 주로 관심을 두는 것과 달리, 가해자와 동일시하여 가해자의 괴롭힘 행동을 돕거나 힘을 실어줌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원하는 동조자(Twemlow & Sacco, 2013)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또래괴롭힘 상황에서의 동조행동과 관련하여 거부민감성이나 소속에 대한 욕구 등 그동안 경험적 연구를 통해 거의 검증된 적이 없는 변인들을 하나의 연구에서 통합하여 살펴본 점도 앞으로의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집단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차별적 관계를 발견한 것은 성별을 고려한 보다 효과적 개입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거부불안민감성이 동조행동을 설명하는 경로가 이론적 근거가 약했기 때문에 이 경로를 제외한 경쟁모형을 설정하였고, 적합도 비교 결과 간명성 원리에 따라 경쟁모형을 채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거부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이 거부를 피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동적이 되거나 순종적 행동을 하게 되고(Purdie & Downey, 2000),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을 경우에 집단규준에 더욱 동조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음에도(Romero-Canyas et al., 2010) 본 연구에서 거부불안민감성과 동조행동 간의 직접적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거부에 대해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보이는 성향 그 자체로는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를 돕거나 강화하는 행동의 증가를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소속에 대한 욕구의 증가를 통해서만 동조행동의 증가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처럼(예, Knapton et al., 2015; Romero-Canyas et al., 2010) 사회적 거부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동조행동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거부불안민감성의 역할을 살펴본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으며, 거부불안민감성과 동조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으로 거부되어 소속에 대한 욕구가 좌절된 사람들은 자신을 수용한 내집단의 편에서 외집단(out-group)에 반대하는 정치적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이러한 관계가 거부민감성이 높은 경우에 더욱 두드러졌다는 Knapton 등(2015)의 연구결과는 거부민감성이 소속에 대한 욕구와 동조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조절변인으로서의 거부민감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후속연구

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동조행동의 기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추정을 일부 포함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을 보다 정교화하고 다른 매개, 조절변인을 활용한 확장된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논의했듯이 본 연구모형은 소년들의 동조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소년들이 어떠한 경로로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동조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 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http://yhs.cdc.go.kr/>에서 2015년 1월 인출
- 김나영, 조유진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 효과. *인간발달연구*, 16(3), 149-162.
- 김혜리 (2013). 또래괴롭힘 참여역할에 따른 인지적, 정서적 공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4), 1-20.
- 박지윤 (2004). 아동용 거절 민감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정 (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서미정 (2013). 도덕적 이탈 및 도덕적 정서가 또래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6), 123-138.
- 신은경, 강민주 (2014). 학령 후기 아동의 성별, 내적 통제성 및 공감이 집단 따돌림 동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5), 329-358.
- 오영희 (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59-77.
- 오영희 (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645-663.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51-59.
- 이혜련, 김희화 (2015). 청소년의 심리적 반발심 및 부모-자녀 갈등과 가출충동 간의 관계. *인간발달중재학회지*, 6(1), 49-67.
- 장미희, 이지연 (2011). 모애착,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1), 35-53.
- 전주연, 이은경, 유나현, 이기학 (2004). 집단 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 23-35.
- 정제영, 이승연, 오인수, 강대훈, 류성창 (2013). 주변인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과학연구*, 44(2), 119-143.
- 조윤주, 정옥분 (2009). 청소년의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매개된 조절모형 검증: 또래동조성의 작용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6(3), 91-111.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2013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단.
- 홍상환, 박혜정 (2013). 아동의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의 관계에서 거부불안 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4(2), 59-74.
- 황은수, 성영혜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자기인식정서와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9(3), 67-84.
- Allison, B. N., & Shultz, J. B. (2004). Parent-adolescent conflict in early adolescence. *Adolescence*, 39(153), 101-119.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äck, E. A., Bäck, H., & Knapton, H. M. (2015). Group belongingness and collective action: Effects of need to belong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rotest activitie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Advance online publication, 1~8. doi: 10.1111/sjop.12225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enson, M. J., McWey, L. M., & Ross, J. J. (2006).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A meta-analysis.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3, 33-43.
- Berk, L. E. (2015). *아동 발달* (이종숙, 신은수, 안선희, 이경옥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13년에 출판).
- Brown, B. B., Clasen, D. R., & Eicher, S. E. (1986). Perceptions of peer pres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 521-530.
- Brown, B. B., Mory, M. S., & Kinney, D. (1994). Casting adolescent crowds in a relational perspective: Caricature, channel, and context. In R. Montemayor, G. Adams, & T. P. Gullotta (Eds.). *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pp.123-167).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Burt, S. A., Krueger, R. F., McGue, M., & Iacono, W. (2003). Parent-child conflict and the comorbidity among childhood externalizing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 505-513.
- Burt, S. A., McGue, M., Krueger, R. F., & Iacono, W. G. (2005). How are parent - child conflict and childhood externalizing symptoms related over time? Results from a genetically informative cross-lagged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 145-165.
- Camodeca, M., & Goossens, F. A. (2005). Children's opinions on effective strategies to cope with bullying: The importance of bullying role and perspective. *Educational Research*, 47, 93-105.
- Chen, X., Chang, L., & He, Y. (2003). The peer group as a context: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n relation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functioning in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74, 710-727.
- Choi, S., & Cho, Y. I. (2012). Influenc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on bystanders' roles in school bullying among Korean-American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4(1), 67-81.

- Choo, H., & Shek, D. (2013).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family conflict, peer pressure, and drinking behaviors of adolescents in an Asian context: The case of Singapo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 1141-1157.
- Collins, W. A., Maccoby, E. E., Steinberg, L., Hetherington, E. M., & Bornstein, M. H. (2000). Contemporary research on parenting: The case for nature and nurture. *American Psychologist, 55*, 218-232.
- Craig, W. M., & Pepler, D. J. (1997). Observations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yards.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3*, 41-59.
- Deković, M., Janssens, J. M., & As, N. (2003). Family predictors of antisocial behavior in adolescence. *Family Process, 42*, 223-235.
- Downey, G., Bonica, C., & Rincón, C. (1999). Rejection sensitivity and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In W. Furman, B. B. Brown, & C. Feiring (Eds.).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pp.148-174).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327-1343.
- Downey, G., Lebolt, A., Rincó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 1074-1091.
- Eamon, M. K., & Mulder, C. (2005). Predicting antisocial behavior among latino young adolescents: an ecological systems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 117-127.
- Elledge, L. C., Williford, A., Boulton, A. J., DePaolis, K. J., Little, T. D., & Salmivalli, C. (2013). Individual and contextual predictors of cyberbullying: The influence of children's provictim attitudes and teachers' ability to interven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 698-710.
- Ennett, S. T., & Bauman, K. E. (1996). Adolescent social networks school, demographic, and longitudinal consideration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1*, 194-215.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231-247.
- Hawkins, D., Pepler, D. J., & Craig, W. M. (2001). Naturalistic observations of peer interventions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10*, 512-527.
- Juvonen, J., & Galván, A. (2008). Peer influence in involuntary social groups: Lessons from research on bullying. In M. J. Prinstein & K. A. Dodge (Eds.). *Understanding peer influ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p.225-244). New York: Guilford Press.
- Kärnä, A., Voeten, M., Little, T. D., Poskiparta, E., Kaljonen, A., & Salmivalli, C. (2011). A large scale evaluation of the KiVa antibullying program: Grades 4-6. *Child Development, 82*, 311-330.
- Kärnä, A., Voeten, M., Poskiparta, E., & Salmivalli, C. (2010). Vulnerable children in varying classroom contexts: Bystanders'

- behaviors moderate the effects of risk factors on victimiz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6*, 261-282.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 Kiesner, J., Cadinu, M., Poulin, F., & Bucci, M. (2002). Group identification in early adolescence: Its relation with peer adjustment and its moderator effect on peer influence. *Child Development*, *73*, 196-208.
- Killen, M., & Stangor, C. (2001). Children's social reasoning about inclusion and exclusion in gender and race peer group contexts. *Child Development*, *72*, 174-186.
- Kim, S., Kochanska, G., Boldt, L. J., Nordling, J. K., & O'Brien, J. J. (2014). Developmental trajectory from early responses to transgressions to future antisocial behavior: Evidence for the role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from two longitudinal stud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6*, 93-109.
- Knapton, H. M., Bäck, H., & Bäck, E. A. (2015). The social activist: Conformity to the ingroup following rejections as predictor of political participation. *Social Influence*, *10*, 97-108.
- Knowles, M. L. (2014). Social rejection increases perspective tak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5*, 126-132.
- Koudenburg, N., Postmes, T., & Gordijn, E. H. (2013). Resounding silences subtle norm regulation in everyday interact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6*, 224-241.
- Laursen, B., Coy, K. C., & Collins, W. A. (1998). Reconsidering changes in parent-child conflict across adolescence: A Meta analysis. *Child Development*, *69*, 817-832.
- Leadbeater, B. J., Kuperminc, G. P., Blatt, S. J., & Hertzog, C. (1999). A multivariate model of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268-1282.
- Leary, M. R., Kelly, K. M., Cottrell, C. A., & Schreindorfer, L. S. (2013). Construct validity of the need to belong scale: Mapping the nomological network.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5*, 610-624.
- Lewis, M. A., Hove, M. C., Whiteside, U., Lee, C. M., Kirkby, B. S., Oster-Aaland, L., ... & Larimer, M. E. (2008). Fitting in and feeling fine: Conformity and coping motive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problematic drinking.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2*, 58-67.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 481-506.
- MacDonald, G., & Leary, M. R. (2005). Why does social exclusion hur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physical pain. *Psychological Bulletin*, *131*, 202-223.
- Martens, M. P. (2005).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unseling Psychologist*, *33*, 269-298.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rter, E. H., & McWhirter, R. J. (2012). *At Risk Youth*. Belmont, CA: Cengage Learning.
- Newman, B. M., Lohman, B. J., & Newman, P.

- R. (2007). Peer group membership and a sense of belonging: Their relationship to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Adolescence, 42*, 241-263.
- Menesini, E., Palladino, B. E., & Nocentini, A. (2015). Emotions of moral disengagement, class norms, and bullying in adolescence: A Multi-level approach. *Merrill-Palmer Quarterly, 61*, 124-143.
- Oh, S. H. (2013). Do collectivists conform more than individuals? Cross cultural differences in compliance and internalizatio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1*, 981-994.
- Olweus, D. (1997).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Facts and intervent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2*, 495-510.
- Olthof, T., & Goossens, F. A. (2008). Bullying and the need to belong: Early adolescents' bullying related behavior and the acceptance they desire and receive from particular classmates. *Social Development, 17*, 24-46.
- Ojanen, T., Grönroos, M., & Salmivalli, C. (2005). An interpersonal circumplex model of children's social goals: Links with peer reported behavior and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41*, 699-710.
- Purdie, V., & Downey, G.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adolescent girls' vulnerability to relationship-centered difficulties. *Child Maltreatment, 5*, 338-349.
- Romero-Canyas, R., Downey, G., Reddy, K. S., Rodriguez, S., Cavanaugh, T. J., & Pelayo, R. (2010). Paying to belonging: When does rejection trigger ingra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99*, 802-823.
-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G. (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3*, 619-700.
- Salmivalli, C. (2010). Bullying and the peer group: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5*, 112-120.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 1-15.
- Salmivalli, C., Lappalainen, M., & Lagerspetz, K. (1998). Stability and change of behavior in connection with bullying in schools: A two-year follow-up. *Aggressive Behavior, 24*, 205-218.
- Salmivalli, C., & Voe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u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 246-258.
- Salmivalli, C., Voeten, M., & Poskiparta, E. (2011). Bystanders matter: Associations between reinforcing, defending, and the frequency of bullying behavior in classroom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0*, 668-676.
- Santor, D. A., Messervey, D., & Kusumakar, V. (2000). Measuring peer pressure, popularity, and conformity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Predicting school performance, sexual attitudes, and substance abus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163-182.
- Scholte, R., Sentse, M., & Granic, I. (2010). Do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Classroom

- attitudes and behavior in relation to bullying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9, 789-799.
- Schwartz, D., Proctor, L. J., & Chien, D. H. (2001). The aggressive victim of bullying. In J. Juvonen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pp.147-174). New York, NY: Guilford Press.
- Shulman, S., Seiffge Krenke, I., Levy Shiff, R., Fabian, B., & Rotenberg, S. (1995). Peer group and family relationships in early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0, 573-590.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s.), *Sociological methodology* (pp.290-31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ussman, S., Dent C. W., McAdams L. A., Stacy, A.W., Burton, D., Flay, B. R. (1994). Group self-identification and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A 1-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576-580.
- Tani, F., Greenman, P. S., Schnieder, B. H., & Fregoso, M. (2003). Bullying and the big five: A study of childhood personality and participant roles in bullying inciden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4(2), 131-146.
- Thornberg, R., & Jungert, T. (2013). Bystander behavior in bullying situations: Basic moral sensitivity, moral disengagement and defener self-efficacy. *Journal of Adolescence*, 35, 475-483.
- Twemlow, S. W., & Sacco, F. C. (2013). How & why does bystanding have such a startling impact on the architecture of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Psychoanalytic Studies*, 10, 289-306.
- Underwood, M. K., & Ehrenreich, S. E. (2014). Bullying may be fueled by the desperate need to belong. *Theory Into Practice*, 53, 265-270.
- Urberg, K., Değirmencioğlu, S., Tolson, J., & Hallidat-Scher, K. (1995). The structure of adolescent peer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31, 540-547.
- Wade, T. J., Cairney, J., & Pevalin, D. J. (2002).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National panel results from three countr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1, 190-198.
- Waters, E., & Cummings, E. M. (2000). A secure base from which to explore close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71, 164-172.

1차원고접수 : 2015. 07. 15

수정원고접수 : 2015. 09. 06

최종게재결정 : 2015. 09. 07

**The Relations between Parent-Child Conflicts and
Bullying-Conformative Behavior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diation Effects of Anxious Rejection Sensitivity and Need to Belong**

Seung-yeon Lee

Keng-hie Song

Sohyun Ahn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anxious rejection sensitivity and need to belong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nflicts and conformative behaviors in bullying situations. For this research, we collected the self-report data of 335 elementary school students (boys: 177, girls: 158) in Seoul and Gimpo. Data were analyzed by gender,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child conflicts influenced anxious rejection sensitivity and need to belong, which consequently contributed to conformative behaviors only among girls. The mediating effect of need to belong was non-significant regardless of gender.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gender-specific approaches to reduce conformative behaviors in bullying situ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effective prevention/intervention strateg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bullying, conformative behaviors, parent-child conflicts, anxious rejection sensitivity, need to belong*